

하늘 가까이 맞닿은 수행공동체를 만나다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 ④ 야칭스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오명불학원에서 야칭스로 넘어가는 길은 험로와 평준한 길의 반복이다. 고산 증세를 호소하는 인원도 간간히 나타나기도 했다. 해발 5000m를 넘는 준령을 넘어야 숨어 있는 수행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이 야칭스(亞靑寺)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험한 이동 경로보다 순례단에게 더 크게 다가온 장애물은 중국의 공간이었다.

야칭스로 들어가 위한 초입에서부터 중국 공안들이 순례단을 제지했다. 당시 티베트와 동티베트는 달라이라마 생신을 전후해 모두 큰 법회를 예정 중이었다. 실제 순례 기간 중 아비장족 자치주 대다수 지역은 인터넷과 해외전화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법회 기간 중 외부와의 연락을 원천 차단했다는 현지인에게 듣기도 했다.

야칭스 순례 동안 중국 공안은 순례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사진촬영의 경우 원경(遠境)과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을 제외하면 허락되지 않았고, 야칭스의 수행자들에게는 말을 걸어서도 안 됐다. 중국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오로지 수행을 위해 모인 사람들

중국 공안들이 선탐을 하면서 순례단을 야칭스로 안내했다. 2006년부터 외국인에게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야칭스는 티베트 불교 종파 중 닝마파(홍모파라고 불림)에 속하는 승려들의 수행공동체이다.

1985년 라마야추 린포체가 이곳에서 사원을 세우자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승려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집단촌이 형성됐다. 지금은 비구니 7000여 명, 비구 3000여 명 등 1만여 명이 모여 산다. 그래서 야칭스는 비구, 비구니 거주지와 사원으로 구분돼 이뤄져 있다.

그들의 개인 수행처는 대규모 난민촌을 연상시킨다. 3~4평 남짓한 판자집으로 이뤄진 이들의 수행처는 다닥다닥 붙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거주지를 양쪽강이 둘러싸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섬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리를 지나 강을 건너면 비구니 거주지와는 달리 제법 구색을 갖추고 있는 비구의 거주지가 있다. 외부 전체가 마니차로 되어 있는 사원과 화려한 금빛 지붕의 사원을 비롯해 거대한

파드마삼바바상도 조성돼 있다.

언덕 이곳저곳에는 한 사람이 가부좌를 틀 정도의 크기로 비닐천막과 판자로 만든 허름한 창고 같은 공간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명상과 기도를 하는 개인 수행장소라고 했다. 매일 오전 언덕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불법을 듣고, 강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침 수행을 하며, 넓은 들판에서는 대규모 법회가 열리기도 한다.

수행자들은 철저한 수행과 교학 공부를 한다. 새벽 4시 30분부터 참선이 진행되며 7시부터는 오전 교학 강의를 이뤄진다. 9시부터 2시간 동안 방장 스님의 강의가 있고 오후부터는 법회와 오전 강의 복습, 수행이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순례단, 야칭스와 교류

조계종 순례단은 야칭스를 이끌고 있는 아승 린포체를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순례단은 몸이 아픈 수행자를 위한 지원금과 합장주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1985년 라마야추가 사원 세우자

집단촌 형성... 現 1만여 명 상주

3~4평 쪽방에 살며 수행·공부

열악한 환경 속 티베트 불심 열파

중 공안 감시 심해 관제화 단면

이후 조계종 순례단은 야칭스 중심에 있는 티베트 불교를 중흥시킨 파드마삼바바 아래에서 칠정례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등 한국 불교 의식을 진행했다. 또한 지도법사 정우 스님의 주도로 염불과 참선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순례단 대장은 이번 순례에서 얻은 발원의 씨앗을 한국에서 여러 모습으로 승화시킬 것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조계종 순례단은 발원문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의 심장 박동소리는 쉼없이 뛰고 있으며 그 박동소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화장세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화장세계에서 피어난 모든 부처님들은 홀출되어 중생이 원하고 머무는 곳마다 당신의 힘을 응집한다"고



중국 쓰촨성 바이위(白玉)현 고산지대에 자리한 수행공동체 야칭스의 전경. 수 많은 쪽방으로 이뤄진 수행자들의 거처가 눈길을 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 수행과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

말했다. 이어 "저희 순례자 모두는 짧은 여정 속에 많은 것을 얻어간다"면서 "이 순례길에서 얻은 씨앗들은 고향으로 품고 가서 개인의 처소에서 수행과 정진, 신심, 화상으로 승화시킬 것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슬프며 아름다운 티베트 불교

오명불학원과 야칭스의 공통점은 원력으로 이뤄진 수행 공동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전통과 사상을 지켜가는 모습에는 저절로 숙연해진다. 이는 순례단 참여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순례에 참가한 상덕 스님(화방사 지역자활센터장)은 "오명불학원과 야칭스의 개인 수행처를 보면 판자촌을 연상시킬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그럼에도 수행과 경전공부에 열심인 그들을 보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불교가 어떻게 종교를 관제화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티베트 불교를 중국 정부가 감시와 통제로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 것을 목도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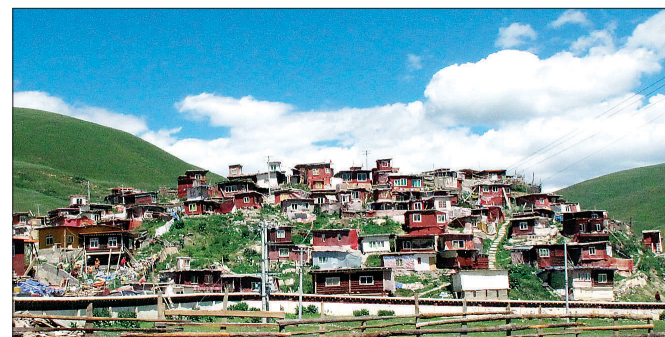
순례 참가자 도유 스님은 "5~6년 전 태국에서 열린 사카디타 대회에 티베트 스님이 나와서 남과 북이 나눠진 한반도의 상황과 자신들의 모습이 닮아 있다며 남북통일과 티베트 독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발원했다"면서 "중국의 감시와 통제의 종교 정책이 티베트 불교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알았다. 그들의 불교가 슬프도록 어렵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야칭스를 돌아 나오는 길, 경전이 쓰여진 타르초가 산위의 바람에 나부낀다. 부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전달되기 위한 그들의 불심은 처연하면서 장엄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원력의 힘이다. 원력이 모이면 현실이 된다.

하늘과 맞닿은 수행처 야칭스는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 스님들이 야칭스내 내려보이는 구릉위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야칭스의 쪽방들. 3~4평 남짓한 곳에서 학인들이 기거하며 수행을 한다.



오체투지를 수련하고 있는 비구 학인들의 모습.



닝마파 비구니 스님들이 법당 주위를 꽃으로 장엄하고 있다.



야칭스 학인들의 교재. 학인들은 새벽 4시부터 일과를 시작해 수행과 공부를 한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이 운동의 창시자는 폐결핵으로 한쪽 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을 기다리다가 「발끝치기운동」으로 살아난 후 「척추운동」, 「골반운동」, 「통증자가치유법」, 「영명이치기」, 「기지개운동」 시리즈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골격이 삐뚤어져 오는 병은 골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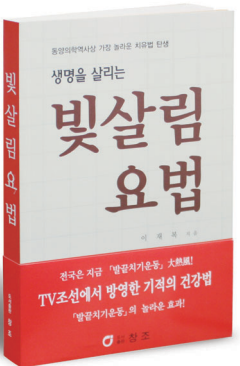
★무료강좌 안내★

★무료체험★

※ 책을 구입하시면 「**무료강좌권**」 과 「**무료체험권**」 을 보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퇴행성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척(냉적)을 쉽게 푸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삐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법 수록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건강 증진하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뺏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3,000원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TV조선에서 방영한 발끝치기운동법 수록!

좋다는 것 다 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증상이 계속 되는 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오셔서 딱 한번만 체험해보면 전신에 상쾌함을 느끼시게 되고 스스로 고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창립 22주년기념!

독자에게 드리는 파격적 건강선물!

책 2권 (25,000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파워21봉**」 1개를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500명만)

※ **구입방법** (토, 일요일 휴무)

25,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전화 알려주시면 책 2권 과 「파워 21봉」 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전화: (02)452-1445~6

계좌: 농협 1149-12-090771 이명숙

위치: 2호선 독섬역 5번출구 앞 우영빌딩 4층

정말 신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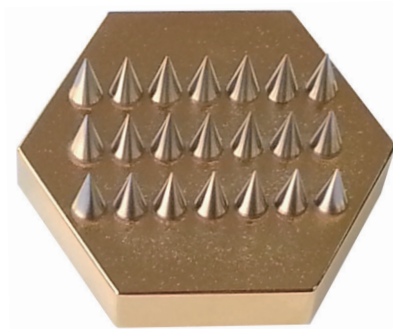
알수없는에너지-히란야의 신비력!

HEXAGRAM POWER SYSTEM - 氣주입기

20여년 전 수녀님들을 통해 비구니 스님께 전해져서 전국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임소문으로 수십만 명이 체험 증명한 육각성 파워 효과제품!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피라미드 파워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히란야의 파워의 놀라움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독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파워 21봉

파워봉의 위력은 아시는 분이 다 아십니다.

한번만 사용해 보시면 바로 압니다.

-70,000원-

